

美 거부권에...유엔 안보리, 가자전쟁 휴전결의안 채택 불발

10개 비상임이사국 초안 주도...무조건적 인질석방 요구도 다른 이사국들 "깊은 유감" 가자지구 사망자 약 4만3천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채택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가자지구 내 사망자가 4만명을 넘어선 인도주의적 상황이 최악으로 내리닫는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스라엘 입장을 들어 휴전 결의안을 거부하면서 서방을 포함한 나머지 이사국들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중동 상황 의제로 회의를 열어 10개 선출직 이사국(E10)이 제안한 가자 전쟁 휴전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의안은 모든 당사자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영구적인 휴전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요구를 재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기권국은 없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거부권 행사 후 휴전 요구안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과 결부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우드 차석대사는 "지속될 수 있는 전쟁 종식은 인질 석방과 함께 이뤄져야 하고, 두 목표는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며 "미국은 이번 결의안이 이 같은 필요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니 다는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도



거부권 행사하는 美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사진은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하는 미국 대표. /AFP=연합뉴스

이날 안보리 회의에 앞선 회견에서 이번 결의안이 하마스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누가 인질과 함께 있고, 누가 그들을 버렸는지 역사는 기억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휴전 결의안에 찬성한 다른 이사국들은 깊은 유감의 목소리를 냈다.

바네사 프레이저 주유엔 몰타 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두고 "절박한 현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은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다시 한번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주유엔 프랑스 대사는 미국 측 주장과 달리 이번 결의안이 인질 석방을 매우 단호하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가자지구에 여전히 프랑스로인 인질 2명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가 인질 석방 요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종료 후 E10 이사국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결의안 채택 불발에 대해 "깊이 실망했다"고 밝힌 뒤 "우리는 국제 평화 유지라는 안보리 책임에 깊이 헌신하고 있으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단합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돼 1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 집계 따르면 가자지구 내 사망자 수는 약 4만3천명을 웃돈다. /연합뉴스

아이티 '전쟁터 방불'...유엔 "일주일 새 150명 사망"

괴한 공격받은 국경없는의사회 "안전 담보 때까지 5곳서 활동 중단"

무장 갱단의 무자비한 폭력 사태에 노출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일주일 동안 최소 1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볼카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일(현지시간) "갱단이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활동 수위를 높였다"며 "수도에 남은 주민 40여만명이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보도자료에서 11-18일 일주일 동안 최소 150명의 사망자와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추가된 국내 실형민 규모는 2만명으로 추산됐다.

국내 실형민은 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통상적 거주지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나, 국경을 벗어나지는 못한 이들을 뜻한다.

튀르크 대표는 "아이티 수도에서 최

근 폭력이 급증한 건 더 나은 일이다가 올 징조"라며 "아이티가 더 이상 혼란에 빠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현지 일간 아이티

엔타임스는 전날 포르토프랭스 인근 한 주택가에서 시신 최소 5구가 주민과 현지 취재진에 의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사망자들이 대부분 갱단원이라고 덧붙였다.

중산층 이상이 주로 거주하는 이 교외 마을에서는 최근 경찰과 갱단원 간

무력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도 경찰에 합세해 주요 통행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거나 마체테(날이 넓고 긴 칼)와 망치 등을 들고 자경단처럼 갱단에 맞섰다고 한다.

살인·약탈·성폭행·납치·방화 등 아이티 내 폭력이 일상화해 가는 가운데 국제 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성명을 내 "포르토프랭스 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이 반복적으로 단체 차량을 세우거나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미 CNN방송은 현지 구호단체 관계자 전언을 인용, 일부 경찰관 역시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측은 "법 집행 기관조차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의료진과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이날부터 의료 시설 5곳에서의 의료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대피하는 아이티 가족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무자비한 갱단의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포르토프랭스에서 한 여성이 아이 셋과 함께 집을 떠나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美 해안서 '종말의 날' 심해어 또 발견

대형 산갈치 올해만 세번째

흔히 나쁜 징조로 여겨지는 대형 심해어의 출현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최근 3개월 동안 3번째로 목격됐다.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의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샌디에이고 북부의 해변 그랜드뷰 비치에서 9-10피트(2.7-3m) 길이의 대형 산갈치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샌디에이고 라호야 코브 해변에서 3.6m 길이의 같은 물고기가 발견됐고, 9월에도 샌디에이고의 북쪽인 오렌지 카운티 헨팅턴비치에서 같은 물고기가 죽은 채로 떠내려와 연구실로 보내졌다.

이 대형 산갈치는 수심 900여m 아래의 심해에서 서식해 사람이 평소에는 거의 볼 수 없는 종이다. 최대 9m까지 자라며 왕관을 연상시키는 붉은색 머리 지느러미가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이 심해어가 얕은 바다에 출현하면 지진과 쓰나미의 전조라



는 신화가 있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 '해양보호'에 따르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전 해인 2010년에 일본 해안에서 대형 산갈치가 최소 12차례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 물고기는 곤경에 처했을 때면 자연 서식지를 떠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배경 등으로 인해 대형 산갈치는 '지구 종말의 날 물고기'(Doomsday fish)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2019년에는 산갈치의 해변 출현과 일본 지진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